

“운명의 날 하루 남았다”... 사활 건 ‘마지막 유세’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1

이재명, 여의도서 “내란 심판”
김문수, 서울시청 “독재 저지”
이준석, 대구서 “40대 기수론”
박판 네거티브 공방 가열 양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한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의미로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유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겨울 탄핵정국때 시민들이 모여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의도 유세 일정을 알리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빛났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말미암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막바지 ‘힘지 공략’에 나선 1일 울산광역시 일산해수욕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점을 부각하면서 ‘내란 심판’ 구호를 선거 막판까지 앞세우고 있다.

자칫 ‘대세론’에 젖어 느슨해질 수 있는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코스피 5000 달성” 등 민생·경제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엄,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유권자에 정치적 피로감을 줬다는 판단 속에 중도층에 소구력이 큰 정책 이슈를 강조하는 한편, ‘준비된 지도자’ 면모를 부각해 자신을 집중 견제하는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포석이다.

1일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와 울산을 거쳐 저녁에 부산역에서 이틀간의 ‘경부선 유세’를 마무리하며 ‘힘지 공략’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는 2일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광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가치를 전면 내걸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끌어안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청렴성을 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 조명받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양탄 괴물

독재 국가”, “총통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독재 저지’ 구호도 내세우고 있다.

2면에 계속
서울·김선숙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전남 유권자 절반 이상 사전투표 ‘역대 최고’

도 56.50% ‘전국 1위’...신안 65.61%
시 52.12% ‘3위’...동구 55.07% ‘최고’

광주·전남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여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30일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전남은 56.50%, 광주는 52.12%의 투표

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4.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남은 전국 1위, 광주는 전북(53.01%)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광주 62만2587명, 전남 88만1109명 등 전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65.61%로 가장 높았다. 곡성·구례·장성·장흥·함평·담양·강진·고흥·진도·완도·해남·보성 등 13개 군도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동구 55.07%, 남구 55.06%, 북구 53.69%, 서구 51.93%, 광산구 48.07%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19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전남 34.04%, 광주 33.67%에서 20대 대선 때 각각 51.45%, 48.27%로 급등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평일에만 실시된 사전투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지현 기자

알립니다

제21회 전남보훈대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6월 19일(목) 오전 11시 전남보훈회관 대강당

정재욱 (80·해남) 상이군경 부문	김축여 (75·보성) 중상이 배우자 부문	오야모 (82·목포) 미망인 부문
박진규 (75·광진) 유족 부문	윤미해 (64·여수) 애국지사 유족	강이원 (91·장성) 6·25 참전유공자
김해룡 (77·목포) 고엽제후유의증	정석봉 (82·목포) 5·18 부상자	*특별 부문

‘제 21회 전남보훈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보훈대상은 순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남일보에서 제정하였으며 전남서부보훈지청과 전라남도가 후원하여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 및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등을 위해 크게 헌신한 분에게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9일(목) 오전 11시 전남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역민의 많은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주최·주관 전남일보사 후원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담양군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e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온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들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